

교회 위협하는 3대 문화적 도전?

기독교 변증가 조쉬 맥도웰, 인식론 변화·인터넷·음란물 지적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3대 문화적 도전으로 인식론적 변화·인터넷 정보·음란물을 지적했다.

최근 맥도웰은 최근 남북침례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 주최로 개최된 기독교 변증론 대회(Christian Apologetics Conference)에서 이를 주제로 한 강연을 전했다.

먼저 맥도웰은 인식론적 변화에 대해 "현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성경 진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리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인식은 신 중심에서 자아 중심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진리는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 견해로 비취질 뿐"이라고 맥도웰은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 경향은 특히 젊은 수록 강하게 나타나며, 기독교인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



조쉬 맥도웰

는 말했다.

맥도웰에 따르면 1991년 복음주의 교인 중 젊은 성인의 51%가 '나의 개인적 견해만이 진리'라고 말한 반면, 오늘날은 91%가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한편 맥도웰은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화적 도전으로는 인터넷 정보를 꼽았다. 그는 "청년들이 문화와 교회, 도덕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데 인터넷 정보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 결과 오늘날 청년들은 하루 평균 34GB의 인터넷 데이터를 접하고 있으며 이는 8,160곡에 달하는 노래 가사의 양에 달한다.

맥도웰은 "모든 목회자들과 청년 사역자, 그리고 부모들은 인터넷과 퍼져있는 정보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CNN이나 CBS가 아닌 블로그에서 뉴스를 찾는다. 1억8천만여 블로그들이 여론 자녀들의 관심과 주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한한 인터넷 정보는 또한 청년들 가운데 회의론적 사고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가르친다면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비슷한 게 인터넷에는 얼마든지 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 심지어 기독교인인 아이들에게도 인터넷은 그들의 확산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내일 무엇을 또 인터넷에서 발견할지 모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정보와의 접촉은 오늘날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더 빨리 신앙 정체성에 대해 눈뜨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맥도웰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청년 사역에 있어서 18세 이전 복음전도가 중요한 과제였다면 오늘날은 그 기준이 12세 이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끝으로 조쉬 맥도웰은 교회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고 있는 도전으로 "음란물"을 언급하며, 이를 "2천여 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 8면으로 이어짐
 순현정 기자

ISSUE



“예수가 유일한 구원” 질문에
 美 기독교청년 중 6할 “No” 답변

남북침례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에서 열린 제20회 연례 기독교 변증론 대회(Christian Apologetics conference)에서 프로브미니스트리(Probe Ministries)의 스티브 케이틀 부회장은 "청년 크리스천 3명 중 1명 만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믿고 있다"고 발

표했다. 그는 "청년 크리스천들이 정말 무엇을 믿는가"란 강연에서 "세상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김준형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만 피할까? 혜택도 누릴까?

가이드라인 숙지, 저렴한 상조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

오바마케어는 위헌 논란, 또 낙태 및 피임 조항 등 종교자유 침해 논란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의 주인공이지만 한인들에게는 "미가입시 벌금"이라는 강제성이 더 현실적인 이슈로 다가온다. 최근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인구는 4860만 명, 전체 인구의 15.7% 정도다.

주류사회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 규모가 작은 한인들의 경우는 대략

24.9%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오바마케어가 강제하고 있는 벌금을 피함과 동시에 가장 적절한 의료 보험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나오는 상관없는 일!**

직장에서 의료 보험이 제공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입할 필요가 없

다. 주정부가 보장하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어 소지자도 어찌 되었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로부터는 면제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미국 체류 자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벌금을 매길 수 없기에 오바마케어에서 면제다. 정부가 지정하는 인디언 부족에 속해 있거나 감옥에 수감된 사람도 면제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비이민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야 한다. 시민일지라도 해외에 330일 이상 체류한다면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 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한다.

난 면제 대상 아니네! 그렇다면?

자신이 오바마케어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답은 간단하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발효되고 벌금으로부터 자유롭다.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014년 2월 1일부터 해

택을 받고 벌금 역시 피할 수 있다. 늦어도 2014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4년에는 95달러 혹은 소득의 1%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

즉, 연간 소득이 2만 달러인 개인일 경우, 소득의 1%인 2백 달러의 벌금이 2014년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 벌금은 2015년에는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쪽,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소득의 2.5%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된다.

» 3, 4면으로 이어짐
 김준형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CERTIFIED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세계의 빛을 AmGreen 과 함께...
교회나 학교(비영리단체)를 위한 태양광 기부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나 학교(비영리 단체)에 무료 태양광(솔라패널) 시스템을 설치해 드립니다.

교회나 학교에 필요한 태양광 시스템을 무료로 컨설팅 해 드리고, 교회의 성도님이나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그 가정에 필요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의 5%를 저희회사가 원하시는 단체에 기부해 드리고, 이 기부한 일정의 양이 그 교회나 학교 (비영리 단체)의 필요한 태양광 시스템 용량에 도달한다면 비영리 단체(교회, 학교)에 저희 AmGreen 이 무료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셔서 전기료를 절약하시고, 교회는 전기료의 걱정에서 벗어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문의: 1-213-388-5652)

계속 올라가는 전기료, 더 이상 걱정없이 쓸 수 있는 태양광 프로그램 이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AmGreen Group, Inc. Tel: 213-388-5652 www.amgreensolutions.com



남가주한인목사회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와 공동으로 한미기독교회관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식당을 LA한인타운 시크릿가든에서 14-15일 양일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목사회 관계자들.

한미기독교회관 기금 마련 위한 두번째 '일일식당'

사용된 최소한의 경비 제외한 기금, 신탁계좌에 입금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가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4-15일 일일식당을 오픈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시크릿가든(구 한송 부페)에서다. 이 행사는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홍순헌 장로) 공동 주최 하에 열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운영 목사는 행사 오픈에 앞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작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회관 건립을 위해 수고해온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목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사용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모금된 기금 전액을 월서스테이트뱅크에 오픈된 신탁계좌에 입금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회관을 구입하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는 계좌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회장 백지영 목사.

아이오와 인권위, 동성애자 인권 찾기에 혈안

신앙적 이유에 근거해 동성결혼식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길 거부했던 꽃집, 빵집 등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미술관이 그 대상에 올랐다. 아이오와 주의 이 미술관 역시 신앙적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장소를 제공하길 거부했다. 그러자 주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고 이 문제는 소송으로 번졌다.

이 미술관은 '괴르츠 하우스 갤러리'로 교회를 리모델링 한 아름다운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인인 보수적인 재세례파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였다. 주인 리처드 오드가드 씨는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국적, 종교,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관객을 환영한다"고 명시한 후, "그러나 동성결혼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것"이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변론을 맡을 베타 펀드 측은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오와 사법당국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지켜 왔으며 이번에도 그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인권위원회는 최근 한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임대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14만7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후, 동성애 관련 차별 사례를 찾는 데에 혈안이 된 상태다.

김영신 기자

실천적 신앙은 5명 중 1명, 전도하는 사람은 25명 중 1명 통계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여기서 그는 최근 사회학자들이 사춘기 이후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성인 사이의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인 이머징 어덜트(emerging adults)를 소개했다. 쉬운 말로 정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완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 정도의 연령 세대라고 보면 된다.

이들에게는 주로 5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개인적이고 주관적

인 도덕 관념을 갖고 있으며, 소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고 성은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고 믿는다. 또 중독 등 향락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

케이بل 부회장은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 주목해야 한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함과 동시에 믿는 이들 가운데 포로된 자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면 안된다. 대다수 사람들의 뇌는 20대가 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청년 세대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이بل 부회장은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 제너럴소셜서베이(General Social Survey), 베일러릴리전서베이(Baylor Religion Survey) 등의 자료를 인용해 강의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미국인 중 9%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이머징 어덜트들에게 그 수치는 더욱 낮아진다. 1990년에는 18세에 30세 사이의 성인 가운데 11%가 무

종교인이었으나 2012년에는 31%가 그러했다. 그는 "이런 추세라면 청년의 절반 이상이 무종교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중요한 통계는 1976년에 비해 '거듭난 크리스천'의 수가 무려 22%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이머징 어덜트의 경우는 3명 중 1명만이 "예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케이بل 부회장은 "3명 중 2명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거듭난 청년" 가운데 3

분의 1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했고 5분의 1만이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참고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듭난 청년 크리스천은 2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청년들을 "문화의 포로"라고 지칭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문화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은 불변한 것이다. 이 청년들은 문화의 밧을 벗어나 객관적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KIM Mission 제44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II 라오스 세미나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 Missio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KIM Mission Ministry Mentors

대표 이사장 전임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KIM Mission 소개

KIM Mission은 지난 12년간 진행되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의 제2의 헌신 공동체입니다. 김 미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선교현장 사역을 돕기 원합니다. 김 미션은 헌신된 평신도 비즈니스맨들을 주축으로하여 지역교회와 선교 비전으로 이끄는 사역 멘토 목사님들의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5만명 이상이 수료한 세계적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가운데 김 미션은 12년간 43차례 한국어 세미나를 통해 35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미주 30회, 선교지 13회) 약 300여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가을 인도네시아 3개국 순회(3차례)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가을에는 라오스 한인 연합교회에서 제 44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김 미션은 세계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조망해 주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의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 및 한인사회에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KIM Mission은 선교에 헌신된 분이라면 누구나 동참하여 평생 동역자로 장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www.KIMMission.org 참조).

"나는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피터 와그너 박사(전 풀라산대원 교수)

"교회부흥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에 눈뜨는 일입니다. 선교를 향한 4방향(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세미나가 바로 이 세계 선교 조망 세미나입니다."
- 정동찬 목사 (KIM Mission Chief Ministry Mentor, 베다니교회, NJ)

"이제야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기 원하는 교회라면 교역자는 물론 모든 선교 실행위원들이 반드시 이 세미나를 들어야 합니다!"
- 서희희 집사 (KIM Mission 후원회원, 초대교회, NJ)

"이 세미나는 강의들 들으면 들을 수록 더 세계 선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구체적인 전략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 강태원 장로 (KIM Mission 부이사장)

세계선교를 조망하며 실제로 느낍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는 미국세계선교본부(U. S. Center for World Mission, 랠프 윈터 박사 창설)에서 1974년에 개발, 지난 40여년 간 영예권 세계의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약 15만명에게 보급해 온 세계적인 선교 세미나입니다. KIM Mission 과 김경환 선교사는 이 세미나를 지금까지 미국 여러 지역과 남미, 동남/동북/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여러 선교지를 순회하며 주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한인 선교 관심자들을 중심으로, 43회에 걸쳐 보급해 왔습니다(수료자 3500여명). 최신판 영어교재를 완전 번역한 한글 MP교재 -요약 해설집 및 컬러 파워포인트 교재 제공

1기간 및 장소:
2013.11.13 (수)저녁부터 11.17(주일) 저녁까지,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담임 김기주 목사님,
http://cafe.daum.net/laosos)

1강사: 김경환 선교사(KIM Mission 대표, 10년간 목회 사역 후 12년간 국제OM선교선 돌로스호 전도부장, 훈련부장, 오뎀 캠프 대표 역임, 현 미육군군목), 임이근 장로 (김 미션 이사장, 스페인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장로, (주)풍림수산 대표), 이원구 안수집사 (김 미션 부이사장, 서울 산은캐피탈 부장), 임재원 집사 (김 미션 부이사장, 구미K&S, Laos 동남소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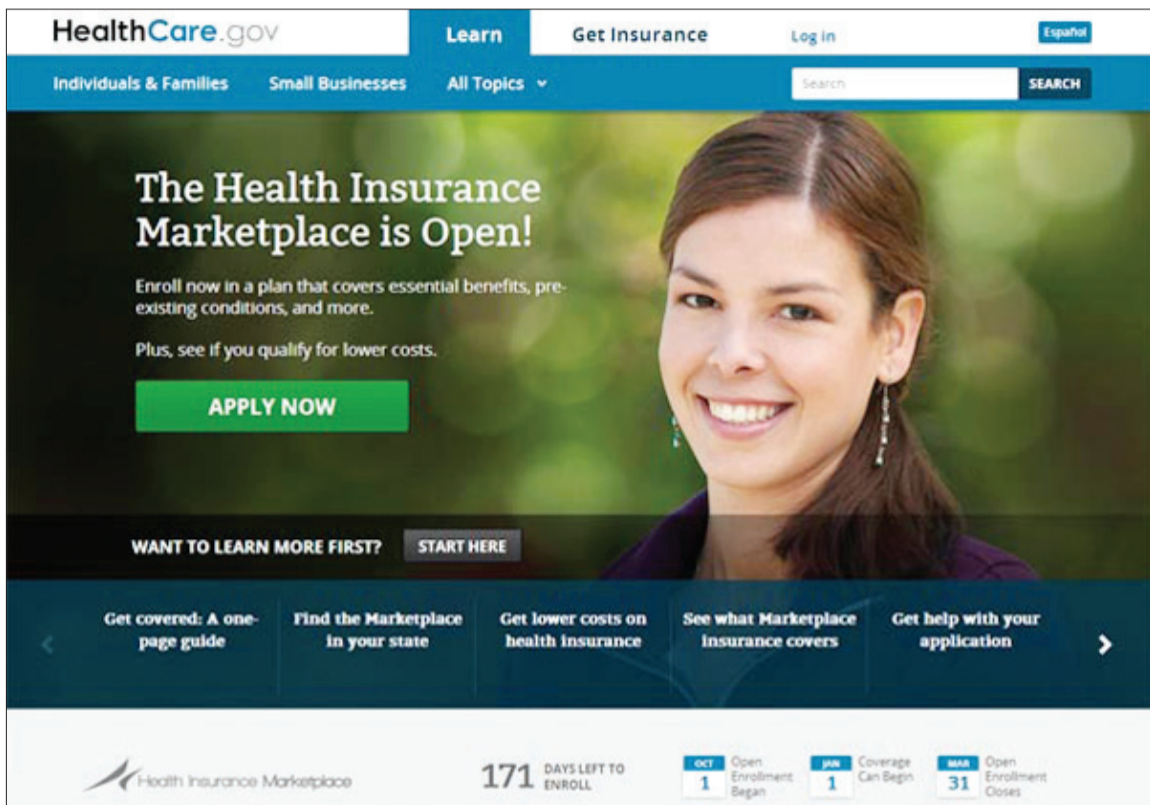
협찬: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www.oMyGod.us, MP 세미나 국제 동문회, KIM Mission 이사회 & 후원회, 인도차이나/라오스한인선교사협의회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문의: 626.354.2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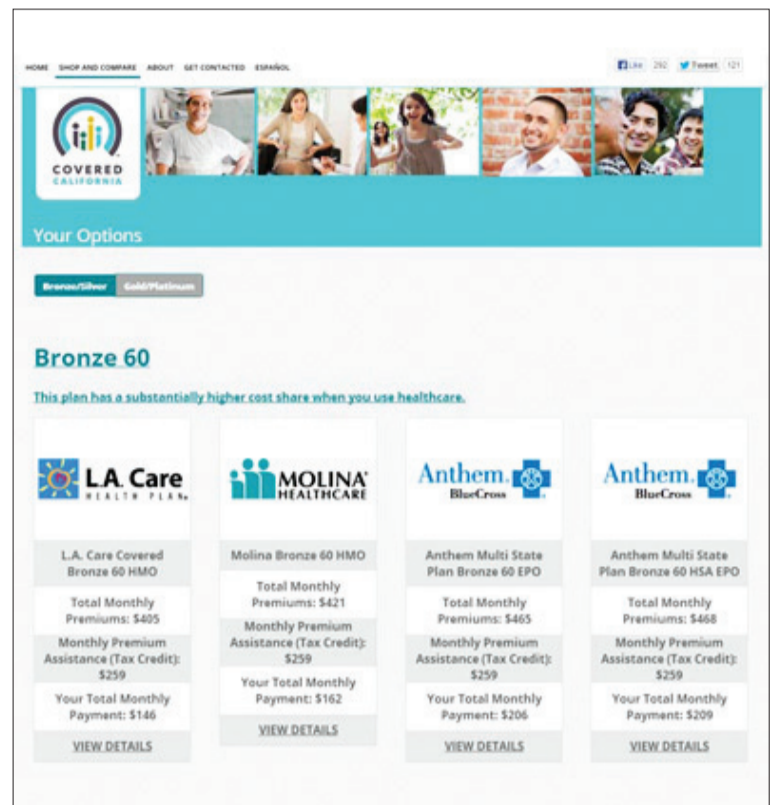
www.KIMMission.org

[오바마케어 1-2-3]

어디서 어떻게 가장 저렴하고 적당한 보험을 찾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수, 연령, 소득 등을 입력하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안한다.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먼저 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자. 여기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마켓 플레이스로 연결된다. 이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가족수, 소득 규모에 따라 다

양한 보험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www.coveredca.com)라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자신의 가족수와 소득을 입력(www.coveredca.com/shopandcompare/#calculator)하

면 LA Care, Molina Healthcare,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Health Net 등이 마켓에 입주해 있는 보험사들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별로 보험 상품을 제안한다. 자신에게 적당한 금액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끝이다.

오바마케어는 무조건 돈 많이 든다? No!

오바마케어는 보험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에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다. 연방빈곤선 138%까지는 보험료가 무료이며, 400%까지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 가구 연 소득이 15,860달러, 2인 가구 21,400달러, 3인 가구 26,950달러, 4인 가구 32,500달러, 5인 가구 38,050달러 이하라면 전 가족이 주정부의 매디칼에 가입돼 의료보험 구매 비용이 사실상 없다. 만약 그 이상이더라도 보조금 혜택이 폭넓다. 예를 들어, LA에 거주하는 연 소득이 6만 달러인 45세 부모 2인, 18세이하 자

녀 2인의 가족이 LA Care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872달러다. 그러나 택스 크레딧 형태의 정부 지원금이 매달 442달러 꼴로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430달러다. 플래티늄급의 Health Net을 구매한다면 매달 1,013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역시 442달러가 지원돼 매달 571달러만 내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부부의 수입이 5만 달러로 줄어들면 2명의 자녀는 매디칼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부부 2명만 LA Care의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605달러로 줄어들고, 지원금 331달러를 빼면 매달 295달러만 내면 된다.

그래도 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할 경우, 이 오바마케어에서 무료 혹은 적절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정부의 보조금이 적거나 혹은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도 있다. 또 신분이 없거나 각종 종교적 이유로 불편함을 겪는 한인도 있을 수 있다.

tan Ministries,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Christian Mutual Med-Aid가 대표적이다.

Medi-share(www.mychristian-care.org/medi-share/)는 1993년부터 총 7억5천만 달러를 회원 간 상호해 온 단체로 미국 거주 시민과 영주권자만 가입이 된다. PPO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가족 수, 나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 상호 프로그램 중 가장 보험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회원에게 의료비가 발생할 시, 이 소식이 타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회원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신용조합 계좌에서 의료비가 각출(釐出) 형태로 지불된다. 가입비가 별도로 있다.

Samaritan Ministries(www.samaritanministries.org)는 어떤 회원에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각 회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이 회원에게 전달되는 형식으로 상호가 이뤄진다. 1994년 시작돼 현재 총 8만6천명의 회원이 상호 부조하고 있으며 1인

은 165달러, 2인은 315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디덕터블은 300달러로 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

이와 달리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www.chministries.org)와 Christian Mutual Med-Aid(www.christianmutual.org)는 한인에게 친숙한 것이 장점이다. CHM은 한인지원국이 있어서 한인들의 의사소통과 가입, 수혜를 도와 주며, CMM은 기독교의료상조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유일한 한인 단체이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CHM에서 독립돼 1996년부터 시작된 단체라 세부적 내용이나 금액, 규정이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면, CHM의 큰 장점은 12만5천 달러가 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플랜인데 이것은 기독교의료상조회 회원에게도 개방해 놓고 있다.

» 4면으로 이어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매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 매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활동을 펴고 있는 방주교회의 봉사자들이 지난 10일 어르신들을 초청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방주교회 주최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장소 이전

LA 한인커뮤니티 대표 자선 행사로 자리잡은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주최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행사가 내달부터 새 장소에서 열린다. 그간 행사는 피코와 벌몬 인근에 위치한 루터란 교단 산하 필그림교회(1233 S. Vermont)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단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교회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방주교회 측은 내달부터 LA 한인타운 내 올림픽과 윌턴 인근에 위치한 중앙루터교회(987 S. Gramercy Pl)에서 행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213) 663-3301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 3면에서 이어짐

먼저 CHM은 오하이오 주에 본사를 둔 가장 오래된 단체로 지난 32년간 10만명 이상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제공한 단체다. 선교사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기독교인

이고 술, 담배를 삼간다면 누구라도 가입이 되며 지병이 있거나 체류 신분은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지병이 있는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병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거나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한국 등 외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 질병당 비용이 500달러가 넘어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미지급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평판이 좋다.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도 당연히 지원된다.

또 모든 플랜에 예비 기간(Waiting Period)이 없어 가입 즉시 혜택이 발효된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

초해 각종 성형 수술, 미용 수술, 임신 중절 및 불임 수술, 정신과 치료는 되지 않는다.

골드, 실버, 브론즈 등 3개 플랜이 있으며 1인일 경우 골드는 150달러, 실버는 85달러, 브론즈는 45달러로 매우 저렴하다. 3인 가족이라도 각각 450달러, 255달러, 135 달러 밖에 되지 않아 오바마케어에 비해 절반 이하 가격이다.

Bring A Friend라는 프로그램이 있

어서 가입회원이 친구를 소개하면 본인의 한달치 월 회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가 많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회원의 월 회비를 올려받지 않는다.

보통 12만5천 달러 이하까지 비용이 지급되지만 만약 연회비 40 달러를 더 내고 브라더스 키퍼에 가입하면 의료비 지급 상한선이 무제한으로 상황 조정된다.

기독교의료상조회(CMM)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본부를 둔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가 인정하는 유일한 한인 상호 단체로 5천여 명이 가입돼 있다. 18년째 사역해 왔으며 현재까지 1천5백만 달러의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 역시 크리스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술, 담배로 인한 병, 낙태, 성병 등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매년 가족 구성원 1인당 예방검진

비로 5백 달러씩을 지원하는 것과 연간 총 디덕터블이 500달러인 것도 특장점이다.

지병이 있거나 체류 신분은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임원, 외래 진료, 처방약(6개월이상 장기복용 제외), 랩 서비스, 임신 출산 등에 대해서도 100% 비용이 지급된다.

한국과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도 지급되며 의사와 병원에 제한을 받

지 않는다. 또 모든 플랜에 예비 기간(Waiting Period)이 없어 가입 즉시 혜택이 발효된다. 골드 플러스, 골드 메디, 골드, 실버, 브론즈와 같은 5개의 다양한 플랜이 있다.

골드플러스는 1인일 경우 175 달러, 온 가족은 425 달러, 골드는 각각 135 달러, 385 달러, 실버는 80 달러, 240 달러, 브론즈는 40, 120 달러 등 저렴하다. 골드 메디는 메디케어 파트

A&B 소지자에게만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1인은 135 달러, 2인은 260 달러다. 25세까지의 자녀들은 수에 상관없이 1명으로 계산되고,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온가족을 2명으로 계산한다. 질병당 비용은 역시 최대 12만5천 달러를 지원하며 그 이상의 비용은 브라더스 키퍼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없이 지원한다.

이들 상호 프로그램과 오바마케어의 차이는 다소 명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연수입이 4만 달러라면, 그는 연방정부

빈곤선 300%에서 400% 사이에 있다. 이 경우 그가 오바마케어의 Health Net 실버급을 구매한다면, 매달 403 달러, 보조금은 87 달러, 즉 317 달러를 내야 한다. 총 치료비가 3만 달러가 나왔다면, 그가 지불할 의료비는 5200달러이며 지난 1년간 보험료와 합산할 시, 9004달러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험이 아닌 CHM을 들었다면 총 의료비는 디덕터블 500달러 뿐이며 지난 1년간 회비를 합산하더라도 2420달러만 지불한 것이 된다.

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저렴하지만 불편함도 있어

비용 면에서만 봤을 때, 상호 프로그램이 오바마케어보다 현격히 싼 이유는 간단하다.

오바마케어는 술, 담배, 마약 관련 질병에 성병, 낙태, 피임까지 모든 의료 문제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상호 프로그램은 비성경적 삶이 원인이라 판단되는 질병은 다루지 않는다.

가입자들의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적어지고 가입자 부담도 당연히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질병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거나 현격히 축소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보험의 경우, 보통 지정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호 프로그램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곤 한다.

상주는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 회원들이 현금으로 의료비를 돕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으며 병원과 의료비 협상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병원이 상호 프로그램에 생소할 경우, 소통에 불편함이

따를 가능성은 높다. 보험은 정해진 병원을 가야 하지만 고객이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엔 빠르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의료비가 청구됐을 때, 상호 프로그램은 회원이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해당 단체에 연락해 의료비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회원이 먼저 지불하기 어려운 큰 비용은 단체가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하지만 회원에게도 최대한 의료 비용을 낮추는 협상에 참

여하기를 권한다. 보험은 이런 불편함이 없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단체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한 공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는 마음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적 비전을 갖고 수십년 간 호평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사역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병이나 낙태, 피임, 불임 등에 관한 지원 금지, 술 담배 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 혜택이 축소되는 단점은 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월 비용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면 된다. 자기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굳이 지원 목

록에 올라가 월 비용만 증가시키느니 않는 게 낫다고 보면 속이 더 편하다.

▶문의: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CHM) 한인지원국 디렉터 스티븐 정, 사무장 크리스티나 정

▶주소: 8362 Artesia Blvd. #H, Buena Park, CA 90621

전화: (213) 444-1599

▶웹사이트: www.chministries.org

▶문의: 기독교의료상조회(CMM) 서부지부장 이원준

▶주소: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 700-9212

지긋지긋한 당뇨병 탁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수원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6215.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 **213.434.1170**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장재효 목사 초청 추계 영성집회

- 10월 6일 (주일) 한마음 제자교회
행 18:1-4 자신의 인생 설계와 주님의 인생설계
- 10월 13일 (주일) 구인성장로교회
행 16:6-15 선교위한 만남의 섭리
- 10월 17일 (목요일) 웨이스 신학대학교
성경신학특강
- 10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생명나무교회
행 28:1-10 구령 성과 위한 주님의 섭리
-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성재복음선교교회
빌 2:19-30 존귀한 복음 사역자들



장재효 목사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주최 : 바른 목회 연구원

문의 : 213-739-0403, 213-718-1512

대인관계의 가치기준

야고보서 2:1-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약 2:1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리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서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들을지이다 하나님께서 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괘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손하지 아니하느냐 8 너희가 만일 경제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나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르면 모두 법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활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이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나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애타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에 의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벧후 1:1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한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매일같이 신앙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고백에는 말로 하는 것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입술로 하는 신앙고백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신앙고백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예수님께도 보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통해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대할 때 걸치레만 보고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기준은 상대방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뒤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곧 내 형제요, 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각 지체로서 머리에서 내려지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준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성령을 받았다면 협력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도록 더욱 마음을 합하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지옥가게 되는 것이니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도록 전도하는 일에 몰입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천국가게 하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삶의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성령으로 가꾸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대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아낌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16절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빈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같습니다. 진정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속셈을 하거나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삭을 모

리아 산에서 재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네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인류에게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으며 설령 이삭이 재물로 바쳐져 젖더미가 됐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

다. 여러분은 머리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각 지체로서 그들의 육신의 겉피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8-9절에 "너희가 만일 경제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나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다음 세상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AM880 하와이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포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에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일보**



2013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은혜 성로원 교회에서 함께 동역 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찬양인도를 하실 수 있고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에 열심이 있으며, 개척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역할 분을 찾습니다.

신청 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 및 신앙고백서
 3. 학력증명서
 4. 목사 안수증 사본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9월 30일

Email : jcjohn@hanmail.net

주소 : 850 S.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은혜 성로원 교회 송성엽 담임목사
850 S.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군중이 옳은가?



박 광 철 목사
조이헬로쉽교회

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절대 다수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요구 중의 하나는 지난 400 여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더 좋은 음식과 더 많은 물을 달라고

반복해서 소리쳤습니다. 타임지(2013년 7월호)는 “지금 이집트에서는 군중이 모든

것이다. 타히르 광장에 모인 군중이 무바라크를 축출하고 모르시를 제거했다”고 썼습니다. 군중이 삶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공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부부합의-수넴 여인과 그 남편

부부가 살다 보면 의견이 너무 달라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일 때가 있다. 재정·육아·교육·거주 등 서로 합의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부가 대화를 통한 조율 없이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행복한 부부란 배가 산이 아닌 바다로 가도록 합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여 극진히 섬겼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으니 그를 돕자고 했다. 그녀의 제안에 남편은 동의했다. 그들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편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마련한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서 쉬게 됐다. 그는 시종 게하시를 시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고 했다. 그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왕하 4:13)고 했다.

실로 그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물어보니,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의



이 선 이 목사
솔람미상담소 연구원

으로 한뼘한 호소를 엘리사에게 했다. 이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으로,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번 재채기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이에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수넴 여인의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자는 말에 합의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거처를 만들고자 할 때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아들의 죽음에 놀란 그 여인이 또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고 하자,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참으로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남편인 것 같다.

남녀의 차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한 쪽에 맞추도록 강요하지 말고, 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부부가 서로 대화는 하고 싶는데 시간이 바빠서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다. 밥 먹는 시간,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편지, 주말 시간, 퇴근 후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어느 철학자는 ‘결혼은 긴 대화라고 했다. 결혼에 있어 대화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된다. 대화로 부부간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Revival Conference 부흥성회

남가주 가스펠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부흥성회 및 기념예배

꿈과 희망이 있는 남가주 가스펠교회가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부흥성회 및 창립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지치기 쉬운 우리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활력과 도전을 줄 금번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제 : 성숙한 교회
-감사 부흥성회 일정-
10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10월 19일(토) 오전 6시
10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10월 20일(주일) 오전 11시

강사 박승빈 목사
(델피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미남침례회한인총
회장 역임)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10월 20일(주일) 오후 4시



남가주 가스펠 교회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92844
Tel: 714-799-5673 / www.gfkbc.com

담임목사 홍현창

선교사역을 위한 제7회 사랑의 찬양제 LOVE CONCERT



일시 : 2013년 10월 27일(주일) 5시
장소 : 아늘샘 교회 (박주동 목사 시무)
19648 Camino De Rosa Dr. Walnut, CA 91789 Tel. 949-595-3110
주최 :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우원 : 안국경로의 중연암회, 안국기독교 중연암회,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 안인목사회, 남가주 안인 여성목사회, (사) 안국 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 ▷Who fixes your car?
누가 당신의 차를 고치나요?
- ▷The mechanic fixes my car.
정비공이 차를 고칩니다.
- ▷Does he charge a lot?
비싼 편인가요?
- ▷No, he is very reasonable.
아닙니다. 적정 수준입니다.
- ▷How do you go to work?
당신은 어떻게 학교에 가나요?
- ▷I take the bus.
버스를 타고 갑니다.
- ▷What do you do when the weather is hot?
날씨가 더울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 ▷I drink a lot of water.
물을 많이 마십니다.
- ▷Where does your brother work?
당신의 동생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나요?
- ▷He works in an office.
그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English (중급 영어)

Jesus told the servants to fill the jars to the top with water. Then after the jars had been filled, he said, "Now take some water and give it to the man in charge of the feast." The servants did as Jesus told them. The man in charge drank some of the water that had now turned into wine. He did not know where the wine had come from, but the servants did(John 2: 7-9).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물통이 가득 찼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약간의 물을 떠다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라" 이에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잔치의) 책임자는 이제 포도주로 변한 약간의 물을 마셨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요한복음 2:7-9)

English (고급 영어)

Martin Luther is known as the champion of the words: Sola Fide (Only Faith), Sola Gratia (Only Grace), and Sola Scriptura (Only Scripture). He wrote 95 theses to issue his protests against the indulgence of Roman Church on October 31, 1517. Among these theses, the number 62 is most noteworthy: "The most Holy Gospel of the Glory and Grace of God."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솔라피데), 오직 은혜(솔라그라시아), 그리고 오직 성서(솔라스크립투라)"라는 어록을 남긴 챔피언(투사)이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교회의 면죄부 거래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이 담긴 서신을 작성했다. 이 중 62번째 조항이 가장 눈에 띄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란 구절이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2 Chronicles 7:14

JAMA 대회는 2세대를 중심으로 1세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나라에 대한 OWNERSHIP을 갖고 이 나라 청교도 신앙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컨퍼런스입니다.

1세 대상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11월 7일 (목)부터 시작하여 8일-10일 진행되는 NEW AWAKENING CONFERENCE로 연결됩니다.

7 / 목요일 4:00PM - **8 / 금요일** 5:00PM



강사: 한기홍 목사, 유진소 목사, 진유철 목사, 박성규 목사, 권 준 목사, 김지현 목사, 김춘근 교수, 강순영 목사

등록비: 중보기도 컨퍼런스: \$50 (교재, 식사제공)
중보기도 & NEW AWAKENING CONFERENCE: \$100 (교재, 식사제공)

숙소: 숙소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호텔로 각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 참가자에 한해 공항과 교회, 교회와 호텔 차편 제공됨.

- ▶ HOWARD JOHNSON (714)992-1700 | 222 W. Houston Ave. Fullerton, CA 92832 \$69.90 + TAX/NIGHT (10/31일 이전 등록시)
- ▶ DAYS INN (714)733-6778 | 7121 Beach Bl. Buena Park, CA 90620 \$55.99 + TAX/NIGHT (10/31일 이전 등록시)

모든 세대를 위한 집회

NEW AWAKENING CONFERENCE

8 / 금요일 5:00PM - **9 / 토요일** 9:30PM **10 / 주일** 4:00PM-6:30PM

전체집회 강사: BOB GOFF, OS GUINNESS, MARK MATLOCK, JAE PARK, STEPHEN CHONG, 한기홍 목사, 권준 목사, 박수웅 장로, 김춘근 교수
*전체집회 강사 외 수십명의 전문선택강의 강사들이 초대됩니다.

2세대회: YOUTH, 대학생, 초등학교, 교사, 찬양사역자, 목회자, PROFESSIONALS

- 1세 대회:** *전체집회와 전문강사들이 인도하는 다양한 훈련 및 선택강의들이 제공됩니다.
- 한어권 청년대회:** *전체집회와 전문강사들이 인도하는 다양한 훈련 및 선택강의(영어/한국어)들이 제공됩니다.
- 찬양인도:** LINCOLN BREWSTER, 소향, NEW AWAKENING BAND, GRACE PRAISE WORSHIP TEAM, 냉수 한 그릇

2세 대회 주강사



BOB GOFF 밥 고프
- Restore International(아동학대 방지 비영리 단체) 설립자 겸 CEO.
- 샌디에고 Point Nazarene University 부교수.
- Restore International을 통해 사각지대의 어린이와 빈민 등 목소리를 내기 힘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전략적으로 돕는 사역 진행.

OS GUINNESS 오스 기네스 박사
- 작가 겸 강연가. 런던 대학교 신학 학사, 옥스포드 오리엔탈 대학 대학원 철학박사.
- 더블린의 맥주 양조업자 아더 기네스의 고조손.
- 세계 2차 대전 당시 중국 의료선교사였던 부모로부터 출생. 중국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이후 1951년 영국으로 추방되어 영국에서 교육 및 성장.
- Time for Truth, The Call, Invitation to the Classics, Long Journey Home and Unspeakeable 등 20 여권 이상의 저서 집필 및 편집.

MARK MATLOCK 마크 매트락
- Wisdom Works(청소년의 삶 속 성경적 지혜 성장을 위한 사역) 설립자 겸 Youth Specialties(YS) 대표.
- 20여 년간 청소년 목회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역. Wisdom Works와 YS를 통해 매년 수많은 학생, 부모, 청소년 대상 사역자에게 강연.
-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저서 (Wisdom On... 시리즈, Living a Life That Matters, and Don't Buy the Lie) 및 부모를 위한 저서 (Real World Parents, Raising Wise Children, and Ideas for Parents) 집필.

1세 대회 주강사



1세 대회 주강사
-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 김춘근 교수: JAMA 대표

특별찬양: 소향

한어권 청년대회 주강사



한어권 청년대회 주강사
- 김춘근 교수: JAMA 대표
-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 제이 박 목사: Grace Community Chapel, NJ: Head Pastor
- 박수웅 장로: KOSTA, CMF 강사

특별찬양: 소향

NEW AWAKENING CONFERENCE 한어권 (청년, 부모)을 위한 선택 세미나들

- ▶ **목회자 세미나** 11월8일(금) 오전9:30-오후4:00
강사: 권준 목사, 대니 한 목사, 한기홍 목사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의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의 강사님들과 함께 목회자들만의 시간을 갖고 목회 리더십과 부흥, 그리고 특별히 세대 간의 화해에 대한 주제를 두고 나누게 됩니다.
- ▶ **목회자 사모 세미나** 11월9일(토) 오전9:30-오후5:00
강사: 황순원 사모, 허양희 사모, 정한나 사모, 그레이스 장 사모, 송화숙 사모
어렵고 힘든 사모의 길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며 생기가 넘치고 영향력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안내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와 목회자 사모 세미나 이외의 모든 세미나 시간은 토요일 오후 1:00-5:00입니다

- ▶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운동** 강사: 한중수 목사
근대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배경과 결과들을 살펴 보면서 장차 올 부흥기간에 쓰임 받도록 준비시킵니다.
- ▶ **기독교 세계관** 강사: 송병주 목사
책읽고 진리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세상과 대화할 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어정정한 자리지만 변혁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 ▶ **지금의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강사: 박신욱 목사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과 가치관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긴급함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 ▶ **우리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강사: 민경엽 목사
우리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성경적이고 건전한 원리들에 대해 살펴볼게 됩니다.
- ▶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강사: 박종식 장로
전직 의사로서 Crown Financial Ministry의 한인 디렉터이신 박종식님을 통해 성경적 재정관리, 성경적 부자되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 ▶ **좋은 직업을 위한 자신의 준비** 강사: 풀 박 장로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 **창조의 진화, 무엇이 과학적 사실인가** 강사: 최우성 박사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지구의 역사, 인류의 기원들을 중심으로 진화론의 허위임과 창조 과학적 사실임을 밝혀줍니다.
- ▶ **미혼 청년들을 위한 결혼교실** 강사: 김철민 장로, 강순영 목사, 박수웅 장로, 유상박 장로, 조슈아 박 박사
성경적 결혼관, 결혼을 위한 자신의 준비, 인생의 동반자 만나기, Dating 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 ▶ **성경적 결혼교실** 강사: 김철민 장로, 강순영 목사, 박수웅 장로, 유상박 장로
부부행복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가정 행복의 원리들을 배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로 안내해 드립니다.
- ▶ **지나교육, 좋은 부모되기** 강사: 제이슨 송 박사, 송규식 목사, 레나 한 사모, 박수웅 장로
위대한 자녀들은 뜻있는 부모를 통해 양육되었습니다. 공립학교 마저 성경과 하나님을 떠난 혼란의 시대에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자녀교육을 함께 고민해 보게 됩니다.
- ▶ **예수치유와 건강** 강사: 배성호 박사(목사/MD)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와 건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병태도, 육체의 가시의 비밀, 건강관리 등을 주제로 현직의사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 ▶ **말씀묵상 OT** 강사: 임상훈목사, 김은애 권사
OT할 때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어루만져 생기를 부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줍니다. 효과적이고 깊이있는 OT에 대해, OT를 통해 변화된 분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 ▶ **MISSION**
1) 강사: 최순자 박사와 MOM 강사팀, PGM(세계전문인교회)강사팀
MOM 팀을 통해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고, PGM강사들을 통해서 전문인들을 통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 강사: 정수영 박사
Human Sawing Machine으로 알려진 저명한 심장수술 전문의가 20년동안 중국과 북한에서의 심장수술을 감도하며 겪은 선교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 ▶ **DIASPORA 비전** 강사: 박수웅 장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왜 우리 750만명을 세계 175개국에 흩어냈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 ▶ **기리기 가족** 강사: 고승희 목사
이방 문화권 속에서 "한부모"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까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 ▶ **SINGLE PARENT 회복사역** 강사: 금병달 박사, 금정진 사모
원치 않았던 사별이나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사별 및 이혼가정 회복모임을 안내합니다.
- ▶ **독신기간의 가치** 강사: 금병달 박사, 금정진 사모
미혼이나 독신의 기간을 가장 소중한 의미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법을 안내합니다.
- ▶ **미국을 치유하라! 미국을 되돌려라!** 강사: 김태오 목사, 세라 김 사모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설 곳을 잃은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야 할 치유자들이 절실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가장과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준비시켜야 하는 긴급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남가주 자매대회 조직

(교문, 지역권위원장, 실행위원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교문	김광수 목사	김영길 목사	김인식 목사	민중기 목사	박성근 목사	박용덕 목사	박희민 목사	손인식 목사
	송정명 목사	신승훈 목사	엄영민 목사	유진소 목사	이정근 목사	한기홍 목사	한중수 목사	
대회장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회협회장)		민경엽 목사(OC교회협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지역준비위원장	곽소연 목사(중부)	구진모 목사(사우스베이)	김명락 목사(샌디에고)	김병학 목사(동부)	박효우 목사(LA)			
	손병렬 목사(OC)	유수열 목사(인랜드)	이상영 목사(벤츄라)	이준우 목사(밸리)	정종재 목사(San Bernardino)			
총무	양경선 목사 송규식 목사							
실행위원	남성수 목사	박성규 목사	오경희 목사	이 일 목사	이정현 목사			
	정장수 목사	정영민 목사	정영희 목사	경효훈 목사				

컨퍼런스 등록비:
10/21일 까지 등록시: GENERAL \$70 | KIDS(PRE K-5TH GRADE) \$35
10/22일-11/1일 등록시: GENERAL \$85 | KIDS(PRE K-5TH GRADE) \$45

중보기도 컨퍼런스 & NEW AWAKENING CONFERENCE 집회장소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남가주성결교교역자회가 주최한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5일 유티어 내로우공원(Whittier Narrow Regional Park)에서 열렸다.

제 26회 남가주성결교회 연합체육대회 성황리 열려

남가주성결교교역자회(회장 신현철 목사) 주최 성결교회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5일 유티어 내로우공원(Whittier Narrow Regional Park)에서 열렸다.

교회에서 약 8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번 체육대회는 전년도 우승팀이 대회를 진행하는 관례에 따라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효운 목사)가 행사 제반 진행 및

기획을 담당했다. 특별히 올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생대회도 함께 개최해 연합축제의 장으로 확대했고, 각종 후원과 경품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간의 교제와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만들어 큰 호

응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유니온교회(담임 문병룡 목사)가 종합 우승(배구 Division A 우승)을 거머쥐었고, 임마누엘선교교회(담임 류종길 목사)가 Division B 우승을 차지했다.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그는 "음란물은 목회자들과 특히 청년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에 의하면 음란물을 접하는 주요 집단은 12세에서 25세의 연령층이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50%가 음란물을 보며, 청년 목회자들의 80%가 이로 음란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맥도웰은 나아가 "음란물의 더 큰 문제점은 장시간 이에 노출될 시 중독은 물론 성행동 이상과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세상을 탐험하도록 허락하되 그들이 인터넷에서 뜻하지 않게 음란물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이를 대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도웰은 특히 "나의 자녀는 관촬을 것이다", "나는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와 같은 생각은 위험한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가주 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제 3회 홀리할렐루야성회> 개최

남가주 한인이민자들과 함께 하는 <제3회 홀리할렐루야성회>가 오는 10월 25-27일 미주성결교 남서부 지방회(회장 김건오 목사) 주최 하에 열린다.

로 초청해 열리는 이번 성회는 25일 사우스베이선교교회(담임 조종근 목사), 26일 오렌지중앙성결교회(담임 이경원 목사), 27일 유니온교회(담임 문병룡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신교하는 교회로 놀랍게 부흥해 하나의 모범이 되는 수정성결교회의 선교와 부흥의 간증담을 나눔으로 한인 이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수정성결교회 조일래 목사(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를 감사

'승리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성회는 교회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자세한 문의는 전화 (626) 848-8338(문병룡 목사)로 하면 된다.



남가주 광염교회가 새로 구한 성전 외관. 예배당과 교육관,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구비돼 있다.

남가주 광염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남가주 광염교회(담임 정우성 목사)가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번에 새로 이전한 성전은 LA 한인타운 내 발렌시아와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멋진 예배당과 넓은 주차장은 물론 교육관도 구비돼 있다.



정우성 목사

교회 측은 "새 성전에 입당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입당 감사예배를 통해 많은 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 특별찬양에 지윤자 사모가 나선다. 또한 지사라, 지하나 자매의 바나나 이종주 무대가 마련된다. 새 성전 주소는 1153 Valencia St. LA이며, 전화는 (213) 598-0191, (213) 500-2186이다.



사이프레스 인근 로스무어에 위치한 지오앤디교회(Go&Disciple Church)가 지난 13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가라, 제자여!" 지오앤디교회 창립

30~40대 젊은 세대의 열정으로 무장한 지오앤디교회(Go&Disciple Church, 담임 정병규 목사)가 지난 13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정병규 목사

사이프레스 인근 로스무어에 위치한 지오앤디교회는 지난 1년간 예배를 드려오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패기와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왔다.

정병규 담임목사는 소감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의 영혼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많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깊은 영혼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싶다"며 "말씀이 있는 교회, 말기신 부르심의 플랫폼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가 되겠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교회

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시지를 전한 빌리 차 선교사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권면했다. 예배는 찬양의 시간과 설교에 이어 이영선 목사(말갈선교단)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지오앤디교회 주일예배는 오후 12시 30분, 금요일예배는 오후 7시 50분, 주일유스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각각 드려진다. 웹사이트 주소 www.gondisciplechurch.org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26기 훈련생 모집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훈련기간 2013년10월 21일(월)~2014년 1월 8일(수) 주 3회(월화수반) 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무료설명회 2013년10월 21일(월) 오전 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헵프서) 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3년10월 23일(수)~2014년 1월 11일(토) 주 3회 (월 화 수 반 / 목 금 토 반) 훈련시간 월화수: 저녁7:30-9:10 목금토: 오전10:00-11:40 무료설명회 2013년10월 23일(수) 오전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등록비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 ####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 ####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 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전환
 - ▶ 분석하지 말것,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것, 훈련하라!
 - ▶ 책한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것,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지음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BIZ

“청지기 정신으로 2세 사역 복돋을 터”

소금 수출 계약 따낸 비즈포스트그룹 존 김 대표



비즈포스트그룹 존 김 대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50절)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그 기능을 살펴보자면, 소금은 우선 체내 신진대사를 주도하고, 소화를 돕는 등 위장의 기능을 높이며,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해독 및 살균작용을 비롯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 칼슘의 섭취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안정된 정서와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깨끗한 물과 함께 좋은 소금을 잘 섭취하면 신체의 활동에 활기를 주는 것은 물론 피부도 윤택하게 한다.

이렇듯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단 하루라도 없으면 안될 만큼 소중한 것이 소금이다. 하지만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갈수록 안전한 소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금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에 위해 공급 라인을 탐색해오다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멕시코 염전회사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한인이 있어 화제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 자원개발업체 비즈포스트그룹 존 김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존 김 대표는 지난 7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엑스포타도라 사와의 계약 체결 내용을 밝히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로부터 공업용 소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일대를 탐색해 왔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산업용 소금 수급에 곤란을 겪어 오던 한국 기업에 소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즈포스트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엑스포타도라 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8만 1천여 에이커의 염전 중 147에 이커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20년간 이용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연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연간 1백만톤의 공업용 소금과 연간 5억 달러 추산되는 50만톤 상당의 식용 천일염을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다음은 존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먹거리 안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젠 소금도 맘대로 못 먹겠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소금(NaCl)은 식용을 비롯해 생리적 식염수 혹은 죽염 같이 약용으로도 쓰인다.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 데도 쓰인다. 또한 PVC, 비료 등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공업용 소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년 전부터 양질의 소금 공급 라인을 탐색해온 것이다.

이번에 계약을 맺게 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천일염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지역으로, 해마다 알래스카 돌고래가 새끼를 낳으러 오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총 면적은 1억평 규모로 이 중 9천만평이

만에 해당하며, 연간 강우량이 50밀리리터, 증발량이 2미터 이상에 달한다. 특히 풍부한 햇빛과 해풍, 깨끗한 물은 물론 자정능력이 뛰어난 깃털이 어우러져 지형 면에서도 최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염화나트륨의 수치는 97-98퍼센트에 달하며, 미네랄과 갈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중금속이나 오염물이 없다는 게 그 특징이다. 그래서 까다로운 유대인의 청결식품 인증 마크인 '코셔(Kosher)' 마크를 획득해 생산되고 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멕시코 연방정부가 소유한 염전인데, 계약을 체결하게 된 비결이 있나?

꾸준히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온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여러고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나. 그간 철광석 비즈니스를 통해 멕시코 연방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 소금 관련 의뢰를 했고,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수출 독점 계약을 따게 된 것이다.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 외국 민간기업에 임대할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민족으로 보면 큰 축복이다. 지하자원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번 비즈니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느낀다.

예로부터 소금은 '하얀 금', '작은 금', '하얀 보석'으로 불릴 만큼 예부터 귀한 먹거리였고, 로마시대에는 소금을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줘서 생필품으로 바꿔먹게 할 만큼 귀하다.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무엇보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해왔는데, 수요 공급 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몰량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물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미국에서도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질 좋은 소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비즈포스트그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있다. 물론 해외선교 현장에도 관심이 있지만, 특히 2세 교육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청사진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다. 조만간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시스템을 갖춘 선교 훈련원을 건립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LA 인근에 몇 군데 부지를 알아봐 둔 곳도 몇 군데 있다. 캘리포니아 공교육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대안학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 훈련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단기훈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정하나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선도가 생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은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

박승부 장로 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로션교사 양성
-약침이나기구없이 인산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생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213) 381-7273/213)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성경학교노년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 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벨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선(Controlling)

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혼2배목회,이혼2배목회,이혼2배목회,이혼2배목회,이혼2배목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ung.co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성영 목사
배이나 및 수양관 사용
예리문의 환경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 / 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하시라!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한인교회의 사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제14회 LA기운실 건강교회포럼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허성규·홍진관, 이하 LA기운실)이 10월 17일 오후 제14회 건강교회포럼을 개최한다.

“한인교회의 사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에서 주제발표는 배현찬 목사(워싱턴 주 예수교회)가 나서며, 김동일 목사(은혜의방주교회)와 유용석 장로(LA기운실)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한다.

LA기운실 측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신학적, 실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선교의 의미를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회선교, 이웃과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를 나누는 건강교회포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제 2회 LA기운실 사회봉사상 시상식도 겸해 열린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리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봉사상에는 LA민족학교(윤희주 사무국장), 부모님선교회(주도진 목사), 빛나라선교교회(문정임 목사)가 선정됐다. 상금은 1천불.

이웃과 나누는 <나성영락교회 2013 한마음 나눔축제>



나성영락교회가 지난 12-13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지역주민들과 나누고자 <2013 한마음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12-13일 양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2013 한마음 나눔축제’를 본교회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이 행사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과 생활용품 판매해 생긴 수익금을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에 지원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돕는 행사”라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이 귀한 행사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교회 목양 사역자들 및 성도들은 각 목양별 준비한 아동복, 가방, 남녀 의류, 잡화, 액세서리, 가정용품, 각종 음식, 신선한 과일, 곡류, 주방용품, 학용품, 수공예 제품, 정수기 등을 판매했다.

전 교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각종 단체들과 교회 내 장애인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저소득 프로그램과 장애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전달된다.

미주예심전도대학 제4기 졸업

전도대학으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 제4기 졸업이 2013년 10월 14일 오전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있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에 등록하면 13주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리더의 자격을 준다. 이번 제4기에는 30명의 졸업자가 있었다.

강양규목사(남가주세인약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예배는 남승우목사(한소망교회)의 기도에서 이어 “생명을 가진 자들”(행 8:4)이라는 제목으로 학장인 박용덕목사의 설교 그리고 김용태목사(뉴라이프교회)의 축도가 있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한국의 예심전도대학의 후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목회자들과 사모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전도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미주예심전도대학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전도의 컨셉을 바꾸어 주므로 강의를 듣는 이들이 “전도는 쉽다. 전도는 즐겁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전도법을 가르

치고 있다.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좋아하는 전도”를 지향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 전도법은 무엇보다도 본질적 전도, 눈높이 전도, 맞춤형 전도, 매력적 전도, 전천후 전도, 매그넷 전도, 면류관 전도, 에스킹 전도법 등을 통해 쉽지만 강력한 파워전도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주예심전도대학 강의는 주로 학장인 박용덕 목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동영상 훈련과 전도 간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전도자로 살게 한다.

미주예심전도대학에서는 제5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제5기 수업은 10월 28 오전 9시 30분 남가주빛내리교회 내에 있는 미주예심전도대학에서 시작한다.

또한 전도대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25일(금) 오전 10-12시, 10월 27일(주일) 오후 4시-6시)에 열리는 공개세미나에 참석하면 된다.

▶문의: (714) 401-9874

이지은 기자



미주예심전도대학 제4기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7)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2) 헬레니즘은 개인주의적인가?

<10월 7일자 11면으로부터 내용 이어짐>

(1) 플라톤의 경우

필자는 어떤 단서 없이 Semitism 즉 고대 이스라엘 문화가 공동체적 가치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반해 헬레니즘의 특징을 개인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아래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헬레니즘을 개인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함을 먼저 지적하겠다. 고대 희랍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둘을 꼽으라면 아마도 누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먼저 플라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널리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의 주저는 '국가(Πολιτεία; Republic)'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를 그리고 있는데, 그의 이상 국가의 설립원칙 (foundational principle) 또는 기본원칙은 국민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위



서승원 목사

해서는 국민 각자가 타고난 재능과 소질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 국가가 목표표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이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들 간의 화합과 단결이 필수요건으로 여겨진다. 플라톤의 국가는 생산자 계급, 군인 계급, 그리고 지배자 계급으로 이루어 지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각자의 사사로 운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만 몰두하도록 하기 위해 플라톤은 지배자 계급과 군인 계급에 사유재산과 가정을 금한다. 그들의 생활은 국가가 책임지며, 아내와 자식들은 공동이다. 다시 말해 그의 이상국가에서는 개인주의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플라톤의 국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현대 사상가들 중에서 널리 알려진 비판가 들로는 칼 포퍼(Karl Popper)와 크로스만(R. Crossma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플라톤의 국가가 전체주의적(totalitarian)이라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계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

지난 주간 AB1266 법안에 대한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8월 12일 서명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AB1266 법안은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학생들의 주장에 의해 남녀공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스포츠 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진윤철 목사

만약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여자 운동팀에 가서 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을 금지하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이슈를 만들어내도록 조장하여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 혼돈과 문란을 일으키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프로포지션8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아 기각됐고, 캘리포니아의 유지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 호의적인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PRE, Class Act도 불발된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빠르게 진보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참으로 치열한 '가치관 전쟁'과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원수마귀는 집요하고 철저하게, 실제 현장에서 행동하는 단체들(ACLU, Equal Liberty, GLSEN, 등등)을 결성하고, 서로를 네트워크로 연합하고, 엄청난 물질을 후원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할 것이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고 나라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속수무책 계속하여 패배하고 있는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연합하여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하기는커녕, 자기 밥그릇(?)을 위해 같은 편끼리라도 다투고 분쟁하는데 힘을 다 쏟아서 의욕을 잃은 군사 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는 약속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실히 믿지만, 지금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크고 분명한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없습니다. 후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와 다르게 전장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만 편안하게 관망하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신장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떠한 적을 만나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롬!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데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부 8:00 분당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침례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래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0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각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감동받은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천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시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태평양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PHOTO NEWS

나성소망교회, 가족운동회로 화목 다져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욱 목사)가 지난 6일 소망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교회 한 관계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간 친교와 화목을 도모하는 은혜롭고 귀한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비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HQ헬스, HQ산삼 대표
최창수박사가 주선한
한국 동아일보 1면 Top
커버 스토리 -
미국 산삼 특별 취재 기행



미국 야생 산삼

제가 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특가세일!

미국 야생산삼

1 파운드 = \$1,000

(특대 4뿌리+ 대+ 중 사이즈 산삼 - 454그램)

+ 특별 선물

구연산, 소금(\$120상당) 무료 증정

작년 가격보다
50% 이하의 파격적 가격



300년된 산삼



미국 야생산삼 도매가 최대 유통회사로서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한국 동아일보가 파견한 특별 취재팀과 함께 미국 산삼의 대량 서식지들을 탐사하면서 심마니들과 딜러들의 채취와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산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에서의 미국 산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8일 동안 미국 동부 아팔라치안 산맥의 산삼 서식지 중 NY, VA, NC 주 등 여러 주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왼쪽 맨 밑의 사진은 수많은 심마니들과 함께 채취한 야생산삼들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에든버러성의 모습

「워키토키 유럽」 저자들과 떠나는 유럽 여행(4): 스코틀랜드

죽은 역사와 살아 있는 역사: 스코틀랜드서 만난 존 녹스

변호사(황경태)와 농부(홍윤선), CEO(추광재)와 사회학도(최규동) 등 네 명의 크리스천 남성 청년들이 유럽 곳곳을 탐방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상'을 찾아나선 여행기, 「워키토키 유럽(Walkie Talkie Europe · 이담복스)」의 저자들이 신앙의 '본류'를 찾아 떠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본지에 열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에는 황경태 변호사의 '스코틀랜드 교회를 찾아서'입니다.

영국의 '뱅크 홀리데이(은행이 쉬므로 다른 기관들도 같이 쉬는 관습에 따라 부르게 된 이름)'라는 법정공휴일에 저는 런던을 떠나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은 "어디를 가야 하나?"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정해야 했지요.

스코틀랜드가 가진 매력 중에서 무엇이 집중해야 할까? 멋진 자연환경이나 역사유적? 미술과 음악? 이도저도 아니라면, 잘 먹고 잘 쉬다 오는 여행? 생각 끝에 2박3일의 이 짧은 여행의 주제를 '죽은 역사와 살아 있는 역사'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 일정 중 방문한 곳이 에든버러에 있는 '존 녹스 박물관'이었죠.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과거의 역사, 그렇지만 현재까지 살아서 울림을 주는 역사적 인물인 존 녹스! 그 박물관은 그가 생전에 살았던 집에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의 한쪽 벽면에는 그가 생전에 여왕과 나누었던 대화의 전광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는 '첫 나팔소리'라는 책에서 여성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여왕으로서 나의 권위를 부정하였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존경하옵는 폐하, 그것은 폐하가 아니라 특별히 저 잉글랜드의 이세벨(메리 튜더 여왕)을 비난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치하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였듯 저 또한 폐하의 치하에서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이며, 만일 그녀가 성도를 핍박하기를 삼갔다면 저나 저의 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 존 녹스와, 당시 스코틀랜드의 통치자 메리 여왕이 나누었던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존 녹스가 언급하는 이세벨은 별칭으로 '피의 메리(Bloody Mary)'라 불렸던, 영국의 메리 1세였습니다. 그 유명한 헨리 8세와 첫번째 왕비인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그녀는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를 쫓아낸 아버지와 그가 만든 영국 국교회에 대

해 깊은 반감을 가졌고, 재위 동안 개신교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존 녹스는 그런 그녀에 대해해 붓을 든 것입니다.

존 녹스의 집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창문으로 에든버러의 거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가 기도실로 썼던 조그만 방과 창가에 놓인 책상은 펜을 들어 써내려갔던 날카로운 필치의 글과 한 치 앞도 안보였을 감감함을 돌파하기 위해 매달렸을 '기도의 자리'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소박함과 단순한 경건의 자리에서, 당시 세상을 울렸던 메시지가 터져 나왔음을 상상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과 존 녹스의 대화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백성이 무력으로 군주에게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하오?"

"폐하, 군주가 지켜야 할 한계를 넘으면 백성은 당연히 무력으로라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발작을 일으켜 자식을 죽이려 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붙잡아 칼을 빼앗고 발작이 멈출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면, 여왕 폐하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녀인 백성을 죽이려 드는 군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칼을 빼앗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군주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순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메리 여왕은 로마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 생각하므로 자신은 로마 교회의 정통성을 수호할 것이라 항변합니다.

"폐하, 로마 교회는 이제 참녀같이 타락하였습니다. 제가 로마 교회를 창녀라 부른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교리에 있어서나 관습에 있어 온갖 종류의 간음으로 더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을 전한 이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들이 그대에게 답변해 줄 것이요."

"폐하, 저는 그들이 유럽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교황주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폐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그들이 여기 와서 폐하의 주장을 듣고, 폐하도 결론이 날 때까지 참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폐하도 가톨릭의 헛소리를 듣고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근거가 희박한지 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메리 여왕과 존 녹스의 첫 번째 만남은 끝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어진 대화에서 메리 여왕은 분을 참지 못해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여왕 앞에서 조목조목 할 말을 다하는 사람, 더 나아가 로마 교회에 대해 '창녀'라고 욕하며, 그 교리를 따르는 여왕 또한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용감할 뿐 아니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논리에 있어 당시 어떤 교황주의자와의 토론에서도 자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내부에는, 강인하고 직설적인 스코틀랜드인의 기질이 말씀의 본질과 신학적 탁월함,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확신과 결부되어 터져나왔던 불 같은 에너지가 있었고, 그것은 먼 후대인 지금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5시간을 달려 런던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리고 여행이 끝난 지도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찌릿찌릿한 목소리로 거짖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했던 존 녹스의 얼굴은 여전히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한 선명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그저 보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본주의에 경도되어 그저 재물만을 탐하는 길, 혹은 삶의 쳇바퀴에 그저 지쳐 넘어가는 길에 빠지지 않고,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중재자로서는 것, 개인과 기업과의 관계 뿐 아니라 남한과 북한, 그리고 아시아의 얽히고 설킨 역사적 분쟁을 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날카로운 공의의 칼날과 상처를 싸매고 우는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제가 소망하며 걸어갈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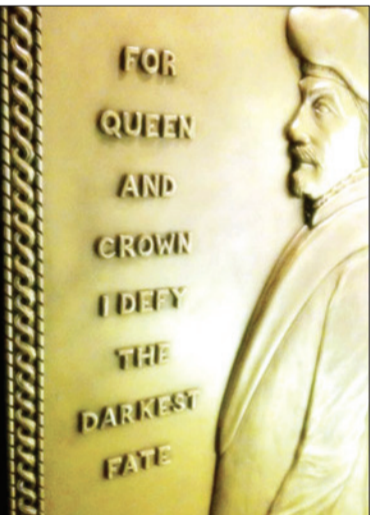
▶ 박물관에 있는, 존 녹스 공동체의 예배 모습을 그린 그림




▶ (왼쪽) 존 녹스의 기도실. (오른쪽) 창문을 통해 에든버러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존 녹스의 방. 책상은 존 녹스가 집필할 때 쓰곤 했던 것이다.



▶ 여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발언하던 존 녹스를 담은 작품



▶ 여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발언하던 존 녹스를 담은 작품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의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생의 사명의지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계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이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와 존엄을 훼손내지 능멸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체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정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된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과를 위해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의지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중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추천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장로의 본질은 영혼 돌보는 '목양'에 있다



성경적인 장로의 상을 회복하기 위한 2013 미주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가 8일부터 9일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성경적인 장로의 상을 회복하기 위한 <2013 미주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가 지난 8-9일 양일간 나성영락교회(김경진 목사)에서 열렸다. 제 18차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

에는 남가주 일원 원근각지에서 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9일 오전 '제자 훈련과 목양장로 사역'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원장)는 "세상에는 이상

적인 목사와 장로는 없지만, 노력하는 목사와 장로는 있다.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사와 장로가 돼야 한다"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목사와 장로

제 18차 2013 미주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가 함께 성숙해진다. 사도 바울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집중했던 것과 같이 한 영혼을 전인격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24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실수도 많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행사가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숙한 교인이 이끄는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목양장로 사역은 본질이다.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본질을 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대동소이한 공통점은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성

경적인 장로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목양장로사역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했을 때 장로들이 매주 새신자들을 돌보면서 새신자 정착율이 높아지고 장로들도 목양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목양장로사역이 한 교회에 정착되면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제 3의 부흥의 파도가 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에는 최홍준 목사,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 고현권 목사(어바인베델한인교회 부목사), 김명섭 목사(호산나교회 부목사, 국제목양사역원 총괄)가 강사로 서서 △시대적 사명에 미래를 보는 지도자 △교회사로 본 장로직의 본질회복 △다음세대를 위한 목양사역 △목양장로사역의 실제 △목양사역 교회사 이야기 △목사의 독특한 위치와 권위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토마스 멩 기자

오렌지카운티교회연합 제 33회 성가합창제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가 주최하는 <오렌지카운티교회연합 성가합창제>가 오는 20일(일) 오후 6시 30분에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에서 열린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합창제에는 나침반교회를 비롯해 남가

주사랑의교회, 미주여성교량, 베델한인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소노로스남성중창단,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포이에마여성합창단, 함께하는교회 등 10개의 단체가 참여한다.

매년 수정교회에서 열어왔던 성가합창제가 이번에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리게 된 것은 손인식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주

최 측은 밝혔다.

이번 성가합창제 음악감독 송규식 목사는 "갈수록 개교회주의로 흩어지는 시대흐름에 반하여 교회가 연합하고, 세속문화에 의해 약화되고 있는 기독교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 정서에 맞는 노래문화(합창)를 다시 세워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의:(714) 699-0210

선교사역 위한 제 7회 사랑의찬양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홍순현 장로)는 오는 27일 오후 5시 하를샘교회(박주동 목사)에서 제 7회 사랑의찬양제를 개최한다.

선교사역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찬양제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사)한국시각장애인선교연합회가 후원한다.

제2회 한마음족구대회

제 2회 한마음족구대회가 19일(토) 오전 9시 아더 리 존슨파크(Arthur Lee Johnson Park, 1200 West 170th St, Gardena, CA 90247)에서 열린다. 한마음교회 주최로 열리는 이 대회

는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역으로, 12개팀(교회, 회사, 동호회)이 참가 예정이며, 참가비는 50달러다. ▷문의: (714) 213-2686(손창우 전도사)

미주장신대 주최 '동성애' 공개강연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총장 이상명 박사)이 건강하고 풍성한 신학과 신앙의 양식을 신학생 및 지역 이웃들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특별강연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개강연회는 오는 29일(화)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컨퍼런스 형식으로 열린다. 진행에 강우중 교수(미주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가 나서며, 사회-문화적 관점(발제 미주장신대 최상준 교수), 성서적 관점(발제 창조과학선교회 최우성 박사), 기독교 윤리적 관점(발제 풀러신학대 이학준 교수)에서 각각 동성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학교 측은 "미국 사회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돼 왔고, 현재 인식의 전개 양상과 심각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또한 성경에 기초한 창조과학 관점에서 동성애의 무엇이 잘못이며, 또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조명한다.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동성애의 다름과 틀림에 대해 사회적 공감과 설득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562) 926-1023

이지은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죽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체장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신제품
소비자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LASR 청소년 공립대안고등학교 이야기]

변화의 시작, 첫 열매



이재영 학교운영책임자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새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성공리에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다음은 LASR의교회 청소년 공립 대안고등학교 이재영 학교운영책임자의 네 번째 글이다. (편집자 주)

방향기를 마치고 배움터로 돌아온 우리 청소년들. 그들의 몸의 습관이 학습 모드로 바뀔 때까지 교사와 학생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곤 한다. 학생들은 온갖 기상천외한 이유를 들어 공부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교사들은 그들 내면에 허를 찌르는 대답으로 학생들의 시도를 무너뜨리곤 한다. 이들에겐 대부분 듣기 어려운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다른 게 있다면 집이 아닌 학교에서 부모에게 들던 비슷한 이야기를 담임교사로부터 듣는다는 것이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다. 학생들이 정말 잘 되기 바라기에 교사들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다.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는 답을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인생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선택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삶에서 가치의 혼돈으로, 선택의 미숙함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아니 그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기에 마음이 더욱 애잔해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졸업 포트폴리오: 인생을 설계하다

미술학교도 아니고 음악학교도 아닌데 졸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교를 졸업하려면 모든 1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졸업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교사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짧게는 16년, 길게는 24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공부한 것을 에세이를 통해 정리해보는 '기록 파트'와 졸업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서치와 계획을 담은 '인생설계도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개교 이후 초창기 졸업생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졸업은 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 다음 챕터로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역할만 따지고 보면 굳이 학교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했던 학생들을 훈련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는 일만으로도 처한 상황이 참으로 벅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극복하고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큰 목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없어 예전 모습으로 귀환하려는 모습을 그저 방관하고 있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교사들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들이 모여 고민하기 시작했다. 작지만 실질적인 일을 도울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졸업생들도 만났다. 졸업 후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졸업 전에 무엇을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공식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됐다.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에게 있는 고민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였다. 특별한 재주나 기술도 없는데 그렇다고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대부분의 학생은 방향성 없이 이것저것 해보다 시간을 허비했다. 학비가 낭비될 뿐 아니라 그저 시도하는 일에 지쳐 있었다. 자기 적성을 찾는 일도 쉽지 않고 또 그 과정을 견뎌내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사실 평생에 걸쳐 알아가야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래도 최소한의 플랫폼은 만들어줘야 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모든 학생에게 Vocation Class 즉 직업수업을 듣도록 강제할 일이다. 이를 위해 이 수업을 전담할 교사로도 새롭게 채용했다.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주 두 차례씩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적성에 맞는 일들을 리서치한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공부나 대학, 그리고 기술과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찾아보게 된다.

Vocation Class는 고등학교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보니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다. 당장 자기에게 딱칠 일이다 보니 말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모인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러한 기술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를 찾도록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과 같이 그 학교를 탐방하고 견학하는 시간이 있다. 캠퍼스투어는 학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실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이나 기술학교 입학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처음 밟는 학생들이나 주위에 이러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함께 방문해서, 카운슬러도 만나게 해주고 기록도 도와주고 캠퍼스투어도 해준다. 특별히 서류미비자 학생에겐 불확실한 정보들이 난무해 실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함에도 방법을 몰라 포기하

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두려움은 실체를 보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일 때가 많다. 실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맞닥뜨려보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다.

요즈음 추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것보다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학업을 마치고 바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Nursing school, Dental Assistance Program, Trade School, 요리사학교, 그리고 정비학교 등이 인기다. 수요도 많은데다 학비도 저렴하고 저소득층 혜택과 학비 보조프로그램도 좋아 학비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학비 전액을 졸업 후에 내도록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졸업 포트폴리오에는 이렇게 자기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진학하게 될 학교와 프로그램, 그리고 입학 신청서와 학비용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리서치하고 작성, 기록해서 만들어 놓도록 한다. 그리고 그 학교 졸업 후 관련 회사에 넣게 될 자신의 이력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졸업 이수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다음 과정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물론 실행 여부는 학생에게 달려있지만, 적어도 몰라서 못했다고는 하지 못하게 정확한 정보와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하게 한다. 직장 모의 인터뷰도 하고 실제 상황처럼 학생들이 면접가 질문도 던지면서 실전에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더 얻도록 말이다.

이제 이들에겐 고등학교를 꼭 졸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더 생긴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는 이러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졸업 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더이상 안주하거나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미드나이트 미션: 배려를 배운다

동시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구제 금융 사역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인 동시에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배려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한 과정이다. 섬김을 배우는 자체도 복된 일이지만,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도전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단체 미드나이트

미션(Midnight Mission)은 LA다운타운에서 100년이 넘게 노숙자들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과 자립 그리고 봉사를 해온 단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단지 사회문제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0년의 세월을 오직 이 하나의 목적으로 사자들을 섬겨온 단체이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15명이 한 조가 되어서 매주 봉사활동에 나선다. 특별한 행사 때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매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처음엔 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배식업무에만 투입됐다. 그러다 자연스레 이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상담 아닌 상담도 해주게 되면서 아이들은 또 다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 늘 자신은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상담의 대상이었지만 한 번도 상담의 주체가 되었던 적이 없었던 학생들이었다. 항상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해야 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수동적으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곳에선 상황이 정반대다. 노숙자 가정의 학생들(그 또래들도 있음)과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특별히 이들에게 상담의 역할을 준 건 아니지만, 배식을 하면서 이들과 어울려 섬기면서 귀담아 들어주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들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스스로 배우게 된다.

학생회: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학생들의 변화는 교실에서도 이어진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가 되려면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사나 스태프를 통해서만 이끌어가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학생회였다. 학교 특성상 이러한 리더십 포지션에 있어본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일을 맡기면 사실 도움이 되기보다 일을 망치는 일이 더 많았다. 도망가기 일수였고 하다 시간이 되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항상 미래를 보고 일을 시작하면 소망이 있지 않던가.

교사들과 서로의 다른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배우며 학생회를 이끌어갔다. 학생회 조직도 인기투표를 아닌 학생들의 전인적 면을 보면서 그 방면에 성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성격이 소극적인 학생도,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도, 성격이 급한 학생도 시간이 지나

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스스로 필요한 제안들을 내어놓고 학생들끼리 참여를 독려했다.

학생회를 통해 매달 1회 Assembly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함께 학교를 다니지만 서로 친해질 기회가 없어 Assembly를 통해 친구들의 생일 축하도 해주고 팻럭(Pot Luck)을 하고 게임 및 그룹 퀴즈를 즐기면서 몰랐던 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또 한 '팬텀' 학교 농구팀도 조직해 타학교와 리그도 갖고 응원하면서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 건물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간 시시비비의 문제도 교사들이 말하기보다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학생들을 설득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편의점 대신 학교 내에 작은 Student Store를 만들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간단한 음료와 라면 그리고 캔디 정도를 취급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했다. 리더가 되기 전엔 그저 방관자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학교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학교 운영에서 학생회는 매우 중요한 주체다. 학생들은 교사와 행정팀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학교생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들의 변화는 작은 참여에서 시작됐다. 그것이 모여 학교를 움직이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변화의 시작: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다

LASR 청소년 공립대안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시에 삶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학교 교육이 차가운 학문과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가치 있는 일, 일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년 25-30명 정도가 짧게는 5-6년 길게는 9-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지만,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배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게 된다. 그냥 지나칠 수 있던 일,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

처음 학교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공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무한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학교를 떠날 때에는 단 1%라도 삶의 변화가 있도록 모든 교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명씩,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이들이 나아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일상신학사전

류호준 | 포이에마 | 4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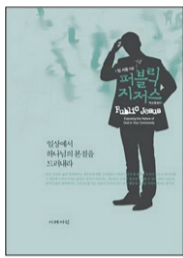
신학자인 저자가 일상 언어 500여개를 자신만의 독특한 눈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정의하여 '사전'의 형태로 묶은 흥미로운 책. SNS에 연재하던 짧은 글들이 바탕이 됐다. 여기에 인상적인 여백과 종종 본문 안에 등장하는 그림들은 자신만의 일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삶을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퍼블릭 지저스

팀 서틀 | 이레서원 | 204쪽

일상, 직업, 안식일, 정치 등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해답을 구한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from) 나온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세상으로(to) 확장되어 나가고, 세상을 위해(for) 존재한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믿음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포도밭

허은순 · 박은지(그림) | 현암사 | 48쪽

열왕기상 '나봇의 포도밭' 사건을 모티브로, 작가는 "만약 나봇에게 아들이 있었다면?"이라는 상상의 가지를 뻗어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왕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포도밭과 바꾸지 않겠다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세 아들은, 포도밭을 가꾸기보다 권력과 돈과 학문을 쌓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영혼의 계절들

브루스 데머레스트 | IVP | 240쪽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는 성경은 물론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전통과 오늘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적 성장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고, 여정의 전체 그림을 제시하여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REVIEW

'구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배우자 찾아가는 믿음의 과정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춘들에게, "교회와 함께 배우자를 만나자"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춘 남녀들이라면, 배우자 선택과 관련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자는 자신의 경험 등 여러 사례를 곁들여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구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신자가 하나님 뜻에 따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게끔 성경 곳곳에 가정에 대해, 결혼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어떡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고도 분명한 교훈과 원리를 이미 주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니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어 한

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개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교회와 함께 배우자 만나기'이다. 저자는 상대적으로 풍성한 자료가 있는 '결혼'보다는 제목처럼 '구혼'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구혼'에 대해 "단순히 이성 교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좀더 신중한 교제 또는 청혼"이 아닌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구혼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초로 교회의 치리 아래 건강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방법이며 무엇보다 '믿음의 문제'이다.

저자는 "오늘날 기독교는 고상하고 신령하여 수준이 높은 신자와 회심했지만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 거

듭나지 않은 사람 등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지만, 성경은 거듭나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한다"며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 배우자를 찾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내 믿음"이라고 진단한다.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돌직구'도 날린다. 그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조건은 신앙이어야 한다"며 "신앙이 우선이라 함은 다른 부분들은 다 크게 매력 없거나 연약한데 신앙만 좋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닌데, 왜냐하면 정말 신앙이 참되다면 다른 부분들에서 결코 매력이 없거나 연약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한재술 | 그책의사람들 | 168쪽

'교회와 함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결혼은 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및 공동체 사

의 문제였다"며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결혼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용적 이유들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신자는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살며 교회 안에서 죽기 때문에, '많이 만나봐야 이성을 잘 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좋다고도 덧붙인다.

책에서는 이외에도 배우자를 만나고 결정하는 데 있어 교회와 부모님, 믿음의 친구 및 선배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외모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배우자를 만나기 전 '독신' 생활에서의 준비 등과 반론 및 질문,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한다.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츄츄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독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4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뺀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신간 빌리 그래함의 외손자가 쓴 「Jesus All」

‘예수 그리스도’ 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카일 아이들만의 책을 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베스트셀러에 진입시킨 두란노에서, 이번에는 “지저스 올(Jesus All)”을 펴냈다. 원제는 ‘Jesus+Nothing=Everything’으로, 지난해 미국 한 기독교 잡지에 의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저자 툴리안 차비진(Tullian Tchividjian)은 빌리 그래함 목사의 외손자이며,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코럴릿지장로교회 담임목사이자 차세대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다. 다소 낮은 이름인 ‘툴리안’은 3세기 신학자 툴리안(테르툴리아누스)에서 따왔을 정도로, 그는 “사랑 가득한 기독교 가정에서 일곱 형제자매의 가운데 위치에서 자라는 복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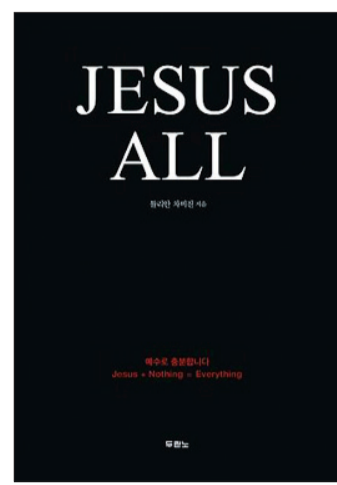
하지만 적지 않은 ‘모태신앙’들이 그러하듯,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풍부했지만 그 뿐이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에 관한 내 지식은 성경적이고 정통적이며 남달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았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머리로는 다 알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 그 ‘빠진’ 요소가 내 삶 속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물론 짧은 반항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이후 ‘툴리안’은 목사가 됐고, 직접 개척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위쪽의 뉴스티교회에서 승승장구했다. 반면 몇 킬로미터 인근의 코럴릿지장로교회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가 1970년대 부모님과 출석했고, 외조부가 헌당예배를 드린 곳이었다. 이 교회 담임목사 후계자로 그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두 교회를 통합하는 ‘아름다운’ 방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때부터가 문제였다. 사방에서 공격이 날아왔고, 그는 “살 소망이 바닥났다”.

이 책은 차비진 목사가 그 ‘인생의 바닥’에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깨달은 공식인 ‘Jesus+Nothing=Everything’, 곧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진리’를 증명해낸 기록이다. 그는 골로새서를 통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모든 삶이 ‘Nothing’임을, 모든 것(Everything)이신 초월자 그 분이 제로(Nothing)가 되신 역사적 사실(성육신)이 복음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이 ‘Nothing’임을 드러낸다는 것.



Jesus All(예수로 충분합니다) 툴리안 차비진 | 두란노 | 260쪽

차비진 목사는 회심 후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크

리스천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예수의 복과 생명, 현재와 소망만으로도 충분함을 역설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복음에 중독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그러했듯 “복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관해 쓰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난 후, 자신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26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저자들로는 제리 브리지스, 싱클레어 피거슨, 마이클 호튼, 팀 켈러, 폴 트립, C. S. 루이스 등이 등장한다. 그가 읽은 책 이야기는 자신의 글 곳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대웅 기자

[성경부터 현대까지, 협동조합의 모든 것]

초대교회처럼, 이 땅을 ‘협동적인 천국’으로 만들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던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발효된 ‘협동조합(協同組合·cooperative)’에 대한 법적 정의이다. 좀더 들어가면 △출자 규모와 관계 없이 1인 1표제(주식회사는 1주 1표)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 △임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보험업만 제외) △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최근에는 발효됐지만, 한국에서는 농협·수협·축협 등을 대표로 오랫동안 이름을 알려왔고,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일종의 ‘내안적 경제’로서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ICA가 1995년 발표한 7대 원칙은 △자발적이고 열린 멤버십 △민주적 회원 통제 △회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정보 △협

동조합들 간의 협동 △공동체에 대한 관심 등이다(154쪽).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가 집중되자 소외된 이들이 함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됐으며, 19-20세기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공동 소유’ 등의 협동조합 개념은, 곧바로 스스로 기쁘게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저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아보고, 현대 기독교 협동조합의 ‘본보기들’과 ‘반면교사’를 소개하며,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장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제 영역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듭난 경제’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협동’이다. 협동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고, 교회가 거대한 권력기관이 됐을 때조차 일부 그리스도인은 변두리에서 일하며 예수가 가르친 협동적 방식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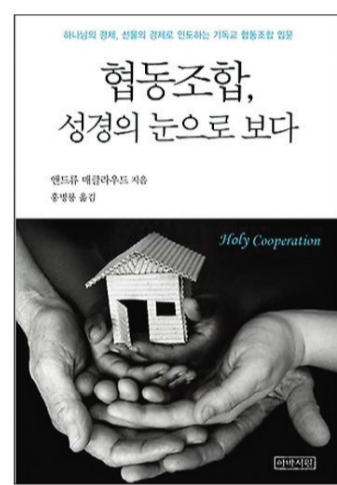
저자는 “성경 이야기의 큰 그림을 보면 더 많은 책임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패턴을 볼 수 있다”며 성경이 말하는 협

동의 특징으로 ①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 ②권력이 어느 개인의 손에 집중되지 않고 다함께 결정을 내리는 일 ③개인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동 규율을 집행하는 일 등 세 가지를 제시한다.

성경적 협동의 모습으로는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과 중세부터 산업혁명 사이의 유럽 농민부락, 초기 미국 역사의 유토피아 공동체 등을 소개하지만,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이슬람의 상호보험회사 등 기독교에 기초하지 않은 협동도 존재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이 기독교만의 것은 아니다.

저자는 “협동조합 모델의 장점은 좀더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점진적 변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며 “혁명은 필요하지 않고, 모델이 많을수록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더 늘어나며,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단계를 밟기 쉬워진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은 최근 주목받는 ‘공정무역’ 등을 통한 제3세계 선교에도 유용할 수 있다.

저자는 “협동조합은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주의에 비하면 엉성한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제공하고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향한 길을 가르친다”며 “협동조합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새 질서를 위한 시험장이자 건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앤드류 맥클라우드 | 아바서원 | 216쪽

축을 블록들로, 우리가 이 땅을 협동적인 천국으로 만들지 경쟁적인 지옥으로 만들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무한 경쟁시대에 내몰린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구성원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 주면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리고 뜻을 모아야 한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 등과 비슷한 모델이 이미 있다면 인터넷 등을 참고해도 된다. 충족해야 할 필요가 파악됐다면 조직을 갖추고, 교회와 별개 조직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자립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등 현실 점검도 필요하다. 조합원을 구해 자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계(契)’라는 상부상조의 조직이 오랫동안 이어 온 나라인지라 협동의 개념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의 관대함은 새로운 협동의 세계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든든한 토대”라는 말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책을 출간한 출판사 아바서원도 협동조합을 표방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WCIU conference: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Advertisement footer: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팔리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있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짬뽕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한국인의 병’ 위장병에 관한 A-Z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 중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를 꼽으려면 단연 한국이 상위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이제 위암은 한국인과 벨레아 벨 수 없는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인의 병’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이니, 말 다했지요.

신기한 것은 세계적인 항암 음식으로 인정받은 김치와 된장, 청국장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위암 발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게 되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음식을 맵고 짜게 먹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지만, 따지고 보면 유럽이나 열대지방 사람들이 한국인에 비해 더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기에 때문에 이것이 위암 발생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 위암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빨리 먹고 불규칙적으로 많이 먹는 식습관 즉, 과식과 폭식, 그리고 급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대체로 위암을 포함한 위장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식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입 안에서 제대로 씹지 않고 빨리 넘길 경우 탄수화물 분해와 발암물질 제거 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빨리 먹으면서 폭식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음식 노폐물이 많이 남게 되며, 이 노폐물은 독성물질을 만들어 위장 점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막으로 흡수된 독소는 림프계, 신경계, 효소 분비계, 혈관계, 근육계 등을 손상시키고 각종 위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엔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체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 세포와 DNA 손상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식사 속도가 약 3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위가 알아서 잘 소화시킬 것이라 과신하고 급히 삼키는 식습관이 ‘위암 세계 1위’의 오명을 씌우는 원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요?

속이 쓰리거나 입 냄새가 심한 경우, 자주 체하고 트림이

주 나는 등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비롯해 역류성 식도염 등은 위장병의 전조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손상 형태나 그 원인에 따라 위궤양, 위염, 위하수, 위산과다(위 식도 역류질환), 심하면 위암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장병의 주요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속 쓰림, 트림, 구역질, 구토, 소화불량, 식후 상복부, 볼배김, 복부팽만감, 변비, 설사, 염증으로 인한 통증 등이 그 주요 증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두통이 동반되며 등이 매우 빠르고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에 담적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위를 불편하게 하기에 결코 방치해선 안 되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 위암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담적 독소가 혈관과 림프계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많은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과식, 폭식, 길고 급식을 하지 않

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담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의 위’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산 역류는 위 안에 있어야 할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와 염증을 일으키는 증세입니다.

신 트림이 나고, 가스가 배출되며, 입 냄새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식도에 답답한 증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한방 약물과 위장 운동기능을 촉진하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은 위나 십이지장이 혈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행히 위와 십이지장 점막은 재생속도가 매우 빨라 한방 약물 치료효과가 큼니다.

위 하수증은 위가 어떤 원인에 의해 탄력을 잃고 아래로 지나치게 처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병의 최종 단계인 위암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딸꾹질, 소화불량, 체중감소, 구토, 포만감 부족 등이 있습니다.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방에서는 위염이나 궤양성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삼주뿌리, 산사열매, 탕자, 유근피 등 20여 가지 한약재를 사용해 위염이나 위궤양은 물론 위암까지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개발하여 사용합니다. 이 약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위장약과는 완전히 다른 제형입니다. 단순히 위장기능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준을 넘어 근본치료를 가능케 하는 차별화된 약입니다.

약의 효능은?

1) 무력해진 소화 기능을 도와 생기가 돌게 하고 2) 설사나 장염에 효과가 뛰어나며 3) 이뇨작용이 좋아 몸이 붓는 부종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아울러 4)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류량을 높인다. 이에 더해 5) 몸에 난 종기나 위궤양 위염, 비염 등의 염증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새로운 한방병원(전화 323-737-3789 /213-219-2739)으로 연락하면 된다.

/새로운한방병원

[베스트 영어훈련원]

3개월 집중훈련으로 영어 완벽하게 ‘마스터’ 하세요

회화 3년 과정을 12주(3개월) 만에 완성하는 <베스트 영어훈련원(원장 최성규)>은 제26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지난 2006년 개원 이래로 ‘기적의 영어회화’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베스트 영어훈련원은 훈련생 모집에 앞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곳 커리큘럼의 특징은 눈으로 배우는 영어 공부를 입체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킨 점이다. 3개월 동안 고도의 반복 훈련을 실시, 영어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말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레 영어회화 실력과 자신감이 향상된다는 원리다.

베스트 영어훈련원 최성규 원장

은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도 말을 못하는 것은 공부만 하였지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영어회화는 말하는 능력이 학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문으로만 공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 원장은 “스키 선수가 훌륭한 스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키 이론을 10퍼센트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90퍼센트는 실제로 스키 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태껏 대부분의 한국인이 영어 공부를 해온 방식은 100퍼센트 스키 이론만 공부한 것과 같다. 이런 연유로 한국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도 제대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베스트 영어훈련원에서는 쉽고 단순한 반복훈련을 통해 학습자의 머릿속에 영어코드를 입력해주는 교육방식을 고집한다. 기초가 약한 경우에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 원장은 이 방법이 “오랫동안 영어회화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 교수진들이 합동으로 펴낸 세계적 영어회화교재 시리즈 <인터체인지>를 회화교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스트 영어훈련원에서 영

어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끝내는 5가지 방법은 △단순하게 훈련하라 △역지로 외우거나 공부하지 말고 자주 반복하기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기 △뇌리에 영어 코드 만들기 △시간을 길게 잡지 말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등이다.

한편, LA 지역 회화 수업은 매주 월~수 주3회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뉘어 각각 10시부터 11시40분, 7시30부터 9시10분까지 진행된다. 기간은 오는 10월21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다.

플러튼에서는 매주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10분까지, 목,

금,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수업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계속된다. 베스트 영어훈련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piritenglish.com, café.godpeople.com/spirite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지역 무료설명회는 10월 21일(월) 오전 10시와 저녁 7시30분에 열리며, 플러튼 지역은 이달 23일(수) 동시간대에 진행된다.

▶문의: (213) 239-4815, (213) 507-0691 ▶LA 주소: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플러튼 주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Fall Event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로 모시는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던 현대차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2013 Accent GS M/T

\$109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60 (STK# DU132319)

PH HYUNDAI D/C \$793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142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100 (STK# 797152)

PH HYUNDAI D/C \$1,263 MILITARY REBATE \$500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VALUED OWNER COUPON \$500



2013 Equus Signature

\$525 +TAX

DEMO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064363)

PH HYUNDAI D/C \$10,000 MILITARY REBATE \$500
COMP. OWNER COUPON \$1,000 COLLEGE REBATE \$400



스티브 장
626.723.3336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